

'인생 2막' 더 큰 꿈 지휘합니다

18년 맡아온 서구여성합창단 퇴임 박민희 지휘자...광주시향 상임단원 활동

밴드 활동·지휘 전공 '음악 인생' 34년간 합창단원 활동도 "디테일, 여성 지휘자의 장점 남성합창단도 지휘 해보고 싶어"

"예전엔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막론하고 여성 지휘자는 '전말'이었어요. 광주만 해도 5개 구 합창단 중 서구만 여성 지휘자였을 정도니까요.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남성 합창단도 지휘 해보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18년 동안 광주 서구여성합창단을 지휘하고 최근 퇴임 후, 현재 광주시향 상임단원으로 활동한 박민희(55) 씨. 음악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고 있는 그는 여전히 지휘에 대한 남다른 꿈이 있다.

박 씨는 세 살 때 부모님을 따라 광주에 정착했다. 학창시절 밴드부와 미션스쿨 찬양예배를 거쳐 조선대 석악전공 및 동 대학 사범대 음악교육과를 졸업했고, 대학원에서 지휘학까지 공부하면서 합창 지휘에 '입문'했다. 이후 광주시립합창단 상임 단원 등 지금까지 34년 간 합창단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광주합창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휘 전공"을 더 많이 해 학생들이 높은 꿈을 꿔오면 해요. 성별을 막론하고 지휘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실력'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 지휘자에 쓰러는 시선으로 인해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지난 달 개봉해 tvN, 각종 OTT에서 상영 중인 '마에스트라'가 떠올랐다. 여성 지휘자 차세음(이영애 분)이 자신의 비밀을 감춘채

음단의 진실을 찾아가는 드라마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다뤘던 탓에 여성 지휘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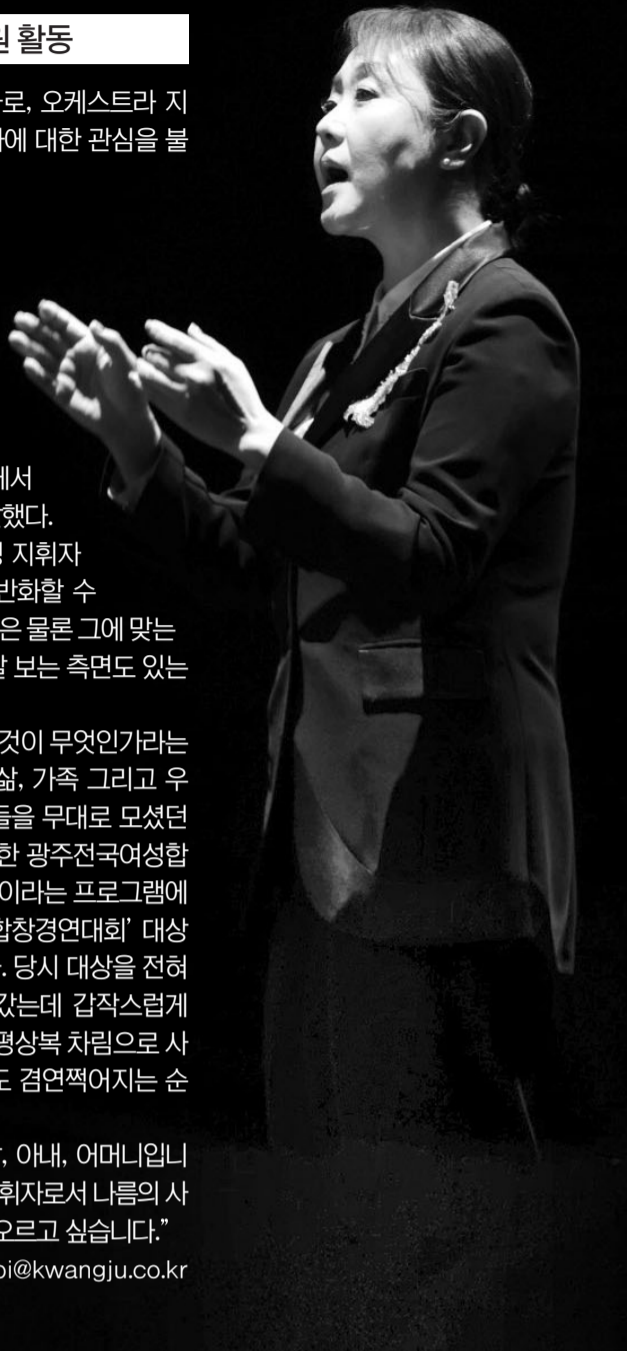
박 씨는 "드라마를 통해 교향악단의 특성을 세밀히 알 수 있고, 여성 지휘자의 강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좋았다"며 "물론 극화된 내용도 있고 주인공의 사적인 서사가 과장된 면도 있지만, 합창 지휘자의 일면을 그렸다는 면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자신이 생각하는 여성 지휘자만의 장점도 들려줬다. 물론 일반화할 수 없었으나 "여성이 의상의 디테일은 물론 그에 맞는 울퉁 등에 있어 세밀한 부분을 잘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휘자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그는 작년 정기연주회 '삶, 가족 그리고 우리'를 꼽았다. 단원들과 어머니들을 무대로 모셨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또한 광주전국여성합창대회 은상 수상,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소개돼 알려진 '거제도 전국합창경연대회' 대상 수상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당시 대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평상복을 입고 갔는데 갑작스럽게 호명이 됐다고 한다. 별 수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사진을 찍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도 겸연쩍어지는 순간이다.

"여성 예술가들은 누군가의 딸, 아내, 어머니입니다. 이들과 동고동락해 온 여성 지휘자로서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지휘단에 오르고 싶습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상설공연' 올해도 기대되네

클래식·국악 등 프로그램 다채...20일 골든스윙밴드로 개막



주요연판소리보존회가 오는 2월 18, 25일 선보일 예정인 '황후 심청' 공연 장면.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작년 한 해 동안 풍성한 레퍼토리로 광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했던 '광주상설공연'이 새해에도 계속된다.

광주공연마루(서구 상무시민로3)는 오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다채로운 문화공연,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2024 광주상설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로 운영 6년째인 광주상설공연은 광주 관광객, 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주말(오후 5시)마다 펼쳐진다.

오는 20일 신년특별공연 '골든스윙밴드와 Swing-을'이 막을 연다. 'I Love Paris', 'September In The Rain' 등이 울려 퍼진다.

'오늘은 클래식'은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7일 선보이며, 임영웅 등이 부르면서 잘 알려진 뮤지컬 시카고 OST 중 '사랑은 늘 도망가'를 클래식 선율로 재해석한 공연이다.

작년 광주국악상설공연 작품공모 당선작들을

만나는 시간도 마련된다. 오는 21, 27일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래와 전통연희놀이연구소가 선보이는 '무등산 호랑이', 2월 4, 11일 예약이 펼쳐지는 '조선 혼인프로젝트 김신부부대'이 바로 그것. 또 '창극 황후심청'은 2월 18, 25일 향산주소연 판소리보존회가 준비했으며, 3월 3일부터는 올해 광주국악상설공연 작품공모 당선작도 무대에 오른다.

특별·기획공연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2월 9-10일에는 '설날특별공연'을, 5·18에는 '5·18 기념 및 추모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세한 레퍼토리 및 일정은 추후 공개.

광주공연마루 관계자는 "지역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말마다 열리는 공연을 보며 누구나 손쉽게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매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 티켓링크 등에서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작곡가 김남삼과 동요이야기

20일 금호아트홀... '들국화'·'가끔은' 등 어린이 목소리로 감상

동요 작곡가 김남삼(사진)은 1985년 어린이날 '빨간 단풍잎'으로 창작 동요계에 데뷔, 그동안 '장미꽃', '우산속의 요정', '멋쟁이 할아버지' 등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미소', '아빠의 말씀' 등 8곡이 수록될 만큼 의미있는 창작활동을 펼쳤다.

김남삼의 곡을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감상하는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칸타빌레시어즈(대표 이지현)는 '2024 작곡가 김남삼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요이야기'를 오는 20일 오후 5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선보인다.

이지아, 주현서(살레시오초6) 양이 들려주는 '들국화'로 공연의 막을 연다. 이어 송원초 3학년 김조차 학생은 '소리가 되고 싶다'를, 삼육초 2학년 김지유는 '가끔은'을 부른다. 오세은(수원초5)의 '조약돌 같은 친구'도 레퍼토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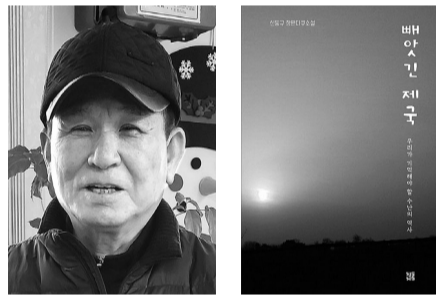
동요 '파도에게 물세례'는 여정현 학생의 목소리로 전해진다. 정준란이 작곡한 '봄비 내린날'과 이재두 곡 '개나리꽃' 등은 칸타빌레 시어즈가

부를 예정이며 이호준(광주예술중2) 학생 등이 특별출연해 '그대 그리운 날'을 들려준다.

이밖에 '그림에서 들리는 소리', '그리움'을 비롯해 '멋쟁이 할아버지', '선생님의 향기', '따뜻한 마음' 등 김남삼의 주옥같은 동요들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김남삼 작곡가는 "저출산 시대에 더 소중하고 귀여운 아이들이 동요를 부른다고 하니 벌써부터 소중한 선물을 받는 것 같다. 많은 무대 경험은 자신감과 자존감, 가장 실력에 도움이 되니 아이들이 실력을 쌓는 음악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대표는 "미래 주역인 아이들에게 우리 동요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희망, 꿈을 선사하는 공연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 초대. /최류빈 기자 rubi@



시해한 내용들이 나온다. 또한 국권을 침탈해 유구한 영토를 35년 간 식민지로 삼은 만행 등이 다 큐 형식의 소설로 형상화돼 있다.

작가는 알려진 역사는 물론 감춰져 있던 비사까지 발굴해 소설의 소재로 차용했다. 특히 연대적으로 정리한 부분은 우리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신 작가는 1998년 월간 '신동아' 공모 1천만원 고료 논픽션 당선, 1999년 계간 '문예연구' 신인상 당선으로 문단에 나왔다. 여수해양문학상, 전영택문학상 등으로 수상했으며 소설집 '운명에 관하여', '흰가마귀산', '순비기꽃'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한일 역사 전쟁' 침략부터 일본 패망까지

장흥 출신 신동규 작가 '빼앗긴 제국'... "미래세대 유비무환 필요"

"내일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이 과거로부터 진행태은 일본과의 관계를 보다 깊이 파악하고 생각했으면 해요. 지난 일을 토대로 오늘의 현실과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흥 출신 신동규(사진) 작가는 역사나 국제 관계에 관심이 많다. 요즘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작가로서의 사유, 책무 등을 생각한다. 그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로 요지경 속이다. 까딱 발을 헛디뎠다가는 어떤 불구덩이로 떨어질는지 겁부터 난다"며 "2년째 끌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복 작전이 그렇고 인종분쟁으로 야기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의 이스라엘 간의 충돌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신 작가가 장편다큐 소설 '빼앗긴 제국' (청동거

울)을 펴냈다. 작품은 '한일 역사 전쟁'을 비롯해 '왜구의 침략', '왜란에서 호란까지', '격동의 조선', '일본의 패망'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미완의 위안부, 강제 노동자 문제는 현재진행형이고 후쿠시마 원자로 오염수 처리라는 새로운 현안은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했다"며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독도 영유권 주장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역사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수없이 침략했다. 저자는 수습의 국면에 임하여서는 정세가 유리해지면 급변하여 신의를 저버린 일이 되풀이됐다고 본다.

책에는 빗장을 건 흥선대원군을 겁박해 강화의 문을 열게 하고 내정간섭을 자행한 일, 종래에는 청일전쟁을 일으켜 조정을 장악하고 명성황후를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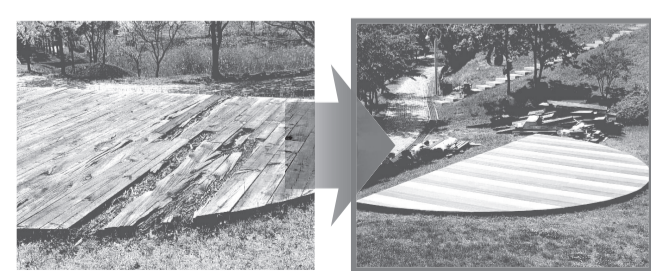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